

제13회 한일미래포럼 in 오사카

2019. 12. 26 ~ 28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이상도

나는 평소부터 일본에 관심이 많았다. 전공이 전공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일본의 정치, 사회, 문화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고, 한국과 일본 간의 복잡한 관계는 당연히 나에게 풀어야 할 아주 중요한 이슈로 자리잡았다. 본격적으로 한일관계가 악화되기 시작할 때 쯤, 운이 좋게도 나는 한국에서 많은 일본 친구들과 만날 수 있었고, 그 친구들에게 한국과 일본 간의 관계, 일본의 정치, 사회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았다. 하지만 나는 일본 친구들의 의견을 들을 수가 없었다. 그 때 일본 친구들이 대부분 “잘 모른다”, “관심이 없다”라고 대답했기 때문이다. 한국 문재인 정권에 대한 것은 물론, 일본 아베 정권의 외교 정책 그리고 국내 정책에 대한 한국인들의 의견은 한국에서 아주 쉽게 들을 수 있었지만, 문재인 정권의 외교정책, 그리고 아베 정권의 외교 정책에 대한 일본 친구들의 의견은 한국에서 들을 기회가 거의 없었다. 미래에 한국과 일본의 복잡한 관계를 풀어나가는 필드에서 일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나에게 있어서는 일본 사람들의 생각, 가치관, 의견을 듣는 것이 필수 불가결했는데, 이때 나는 한일미래포럼이라는 행사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내가 이 포럼에 참여한 이유는 단 한가지, 한국과 일본 사이에 있는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 일본 친구들이 실제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아는 것 그리고 의견을 듣고 나누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번 포럼은 나의 이러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아주 완벽한 기회였다.



나는 '역사교육' 팀에서 포럼을 진행했는데, 처음 모여서 토론을 시작할 때부터 팀원들의 적극성이 피부로 와 닿았다. 논문이나 실제 일본에서 쓰이는 교과서 등 여러가지 사전 조사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준비해온 팀원들을 보면서 감사함과 동시에 자료 조사에서 뒤쳐진 만큼 더 열심히 토론과 발표준비에 참가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각자 짧게 준비해온 5분 발표였지만, 포럼 전체 발표를 위해 따로 자료조사가 필요 없을 정도로 다양한 맥락, 관점에서 해석한 의견이 많이 나왔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논의를 심화시키는 토론에서도 일본과 한국의 역사 교육의 차이



점, 그리고 이로 인한 현상, 이것이 지금의 한일 관계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등 폭넓고 깊게 의견을 공유할 수 있었다. 개인적으로, 이번 포럼에 참여하기 전까지 나는 일본의 역사교육은 왜곡으로 점철되어 있는 교과서를 사용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역사교육은 '문제투성이'라는 선입견이 있었다. 하지만 어떤 한 일본 친구가 카피해온 일본의 역사교과서를 살펴보고 이 생각은 잘못된 것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일본의 역사교과서는 왜곡되어 쓰여진 것이 아니라, 교과서의 양과 서술 방식 등에서 한

국과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한국은 역사(특히 일본과 관련된)에 대해 감정이입해 그 당시의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문화, 가치관, 감정을 느끼고, 그 당시의 상황과 맥락을 이해할 수 있도록 깊고 두껍게 서술하는 방식이라면, 일본은 역사적 사건을 아주 담백하게 서술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여러가지 사회환경의 차이(역사과목 필수, 역사에 대한 비중, 중요성의 차이 등)에 의해 한국인과 일본인은 역사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다르다, 그리고 이것이 현재의 한일관계 악화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것이 우리 팀의 결론이었다.



평소에 잘못된 선입견을 바탕으로 일본을 이해하고 있었던 나에게 이번 포럼은 올바르게 일본을 이해하고 한일 간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는 양국이 어떤 노력을 해야하는지를 생각해보는 아주 뜻깊은 시간이었다.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는 이야기 나누기 민감한 문제들을 일본 친구들과 터놓고 의견을 나누고, 서로의 신뢰감을 회복하는 기회는 좀처럼 경험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도 이번 포럼은 아주 의미 있었다고 생각한다.

다만, 진행이나 일정, 절차 등이 매끄럽지 않았다는 점, 팀별 진행자의 부담이 너무 컸다는 점(진행자의 능력이나 역량에 따라 팀별 결과가 달라짐), 팀 내 불화, 너무나도 긴 토론시간, 다른 팀들 간의 중간토론(의견공유 및 피드백) 과정이 없었던 점, 전체 주제를 하나로 묶는(현재 한일관계와 어떤 식으로 연결하여 생각할 수 있을지) 정리시간이 없었던 점 등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런 점을 개선한다면 앞으로 조금 더 한국과 일본의 대학생들이 서로의 신뢰감을 회복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기회로서 한일미래포럼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